

## 【 P1-21 】

## 수유방법에 따른 미취학 아동의 신체계측, 영양소섭취와의 관계

노희경, 정은, 유주영

조선대학교 식품영양학과

## Relationship of anthropometric measurements and nutrient intakes in preschoolers by infant feeding method

Hee-Kyung Ro, Eun Jeong, Ju-Young Yu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모유는 영아 성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영양소 공급 및 질병에 대한 면역 증강에 있어 이상적인 식품으로 4-6개월 영아들의 성장과 발육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제공해 준다. 이 시기의 성장과 발육은 향후 아동기뿐 아니라 성인기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수유방법이 아동들의 장기간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알아보하고자 광주지역 4-6세의 미취학 아동 177명(모유수유: 62명, 조제유수유 : 62명, 혼합수유 : 53명)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학력, 직업유무, 아동들의 신장, 체중, BMI, Kaup index, WLI(Weight Length index), 삼두근·견갑골 피부두겹두께, 간식섭취, TV시청시간, 영양소섭취를 기준으로 비교 조사하고자 하였다.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모유수유율이, 학력이 높을수록 조제유수유나, 혼합수유율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p < 0.05$ ), 어머니의 직업유무와는 차이가 없었다. 모유수유군, 조제유수유군, 혼합수유군 아동들의 출생시 몸무게는 각각 3.3kg, 3.1kg, 3.2kg이었고, 4-6세에서는 각각 18.6kg, 18.4kg, 18.8kg, 신장은 각각 109.7cm, 108.0cm, 108.8cm로 조제유수유군 아동들의 출생시 몸무게나 성장 후 몸무게가 작게 나타났으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조제유수유군과 혼합수유수유군의 BMI, Kaup index, WLI, 삼두근·견갑골 피부두겹두께가 모유수유군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고, 각각의 비만도 판정에서도 과체중이 더 많이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모든 군 아동들의 TV시청시간은 대부분 30분에서 1시간이었고, 간식섭취는 일일 2-3회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유수유군보다 조제유수유군의 어머니가 아동들의 식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더 많이 응답하였으며, 문제점은 편식이라고 많이 생각하였다. 모유수유군과 조제유수유군, 혼합수유군의 에너지 섭취는 각각  $1331.0 \pm 266.9$  kcal,  $1413.1 \pm 220.2$  kcal,  $1610.2$  kcal로 혼합수유군의 에너지 섭취율이 가장 높았고, 단백질 섭취와 당질의 섭취는 조제유수유군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철분섭취와 비타민 A, 비타민 B2의 모유수유군의 섭취는 각각  $7.3 \pm 2.7$  mg,  $459.5 \pm 241.3$  R.E,  $1.0 \pm 0.3$  mg, 조제유수유군은  $7.7 \pm 2.3$  mg,  $537.2 \pm 240.0$  R.E,  $1.1 \pm 0.3$  mg, 혼합수유군은  $8.6 \pm 3.4$  mg,  $570 \pm 268.8$  R.E,  $1.2 \pm 0.4$  mg으로 혼합수유군의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5$ ). 모든 수유군의 아동들은 단백질과 비타민 C를 영양권장량의 125% 이상 섭취하였으나, 모유수유군 아동들의 철분 섭취는 영양권장량의 75%수준이었고, 조제유수유군도 78%로 철분섭취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조사 결과 수유방법에 따라 미취학 아동의 영양소섭취 상황이나 장기간에 걸친 성장이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되나 비만과 관련한 여러 지표에서 인공수유를 한 아동들이 더 높은 경향을 보여주어서 향후 많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